

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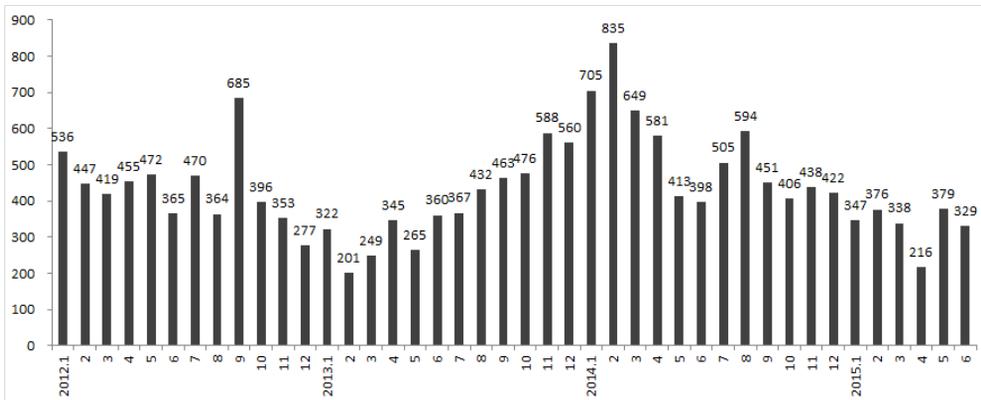
동향분석팀

I. 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상반기 취업자(1~6월 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31천 명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증가(597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초 기록적 고용증가를 보였지만 하반기 이후 취업자 증가 수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연말 고용증가가 30만 명대로 감소했다. 이러한 고용부진은 2015년에도 이어져 1분기에는 30만 명 중반대의 취업자 증가에 그쳤고, 4월에는 216천 명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두 달 연속 30만 명대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는 2014년 상반기의 실적이 워낙 좋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경기침체와 민간소비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그림 1]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연 도			상반기			월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2013. 6	2014. 6	2015. 6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1,582	42,096	42,513	41,985	42,397	42,900	42,098	42,490	43,025
	(증가율)	(1.3)	(1.2)	(1.0)	(1.3)	(1.0)	(1.2)	(1.3)	(0.9)	(1.3)
	경제활동인구	25,501	25,873	26,536	25,614	26,356	26,748	26,291	26,825	27,255
	(증가율)	(1.6)	(1.5)	(2.6)	(1.0)	(2.9)	(1.5)	(1.4)	(2.0)	(1.6)
	취업자	24,681	25,066	25,599	24,755	25,352	25,683	25,478	25,875	26,205
	(증가율)	(1.8)	(1.6)	(2.1)	(1.2)	(2.4)	(1.3)	(1.4)	(1.6)	(1.3)
	(증가수)	(436)	(386)	(533)	(290)	(597)	(331)	(360)	(398)	(329)
	참가율	61.3	61.5	62.4	61.0	62.2	62.3	62.5	63.1	63.3
	(남성)	(73.3)	(73.2)	(74.0)	(72.9)	(73.8)	73.7	(74.0)	(74.4)	(74.4)
	(여성)	(49.9)	(50.2)	(51.3)	(49.7)	(51.0)	51.4	(51.4)	(52.3)	(52.7)
	고용률	59.4	59.5	60.2	59.0	59.8	59.9	60.5	60.9	60.9
	(남성)	(70.8)	(70.8)	(71.3)	(70.3)	(71.0)	(70.9)	(71.6)	(71.8)	(71.5)
(여성)	(48.4)	(48.8)	(49.5)	(48.1)	(49.0)	(49.4)	(49.9)	(50.4)	(50.7)	
실업자	820	807	937	859	1,004	1,065	813	949	1,050	
실업률	3.2	3.1	3.5	3.4	3.8	4.0	3.1	3.5	3.9	
(남성)	(3.4)	(3.3)	(3.6)	(3.5)	(3.8)	(3.9)	(3.3)	(3.5)	(3.9)	
(여성)	(3.0)	(2.9)	(3.5)	(3.1)	(3.9)	(4.0)	(2.8)	(3.6)	(3.7)	
비경활	16,081	16,223	15,977	16,371	16,041	16,152	15,807	15,666	15,770	
(증가율)	(0.8)	(0.9)	(-1.5)	(1.8)	(-2.0)	(0.7)	(1.2)	(-0.9)	(0.7)	
15~64세	참가율	66.4	66.6	67.8	66.2	67.6	68.1	67.3	68.2	68.8
	(남성)	(77.6)	(77.6)	(78.6)	(77.2)	(78.4)	(78.6)	(78.1)	(78.8)	(79.0)
	(여성)	(55.2)	(55.6)	(57.0)	(55.1)	(56.8)	(57.6)	(56.4)	(57.7)	(58.5)
	고용률	64.2	64.4	65.3	63.9	65.0	65.4	65.1	65.7	66.0
	(남성)	(74.9)	(74.9)	(75.7)	(74.4)	(75.4)	(75.5)	(75.4)	(75.9)	(75.8)
(여성)	(53.5)	(53.9)	(54.9)	(53.4)	(54.5)	(55.2)	(54.7)	(55.4)	(56.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5년 상반기 15세 이상 인구는 2014년 상반기 대비 1.2% 증가해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노동시장 여건이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악화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큰 폭으로 둔화해 2015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0.1%p 증가에 그친 반면, 노동시장 밖의 인구인 비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2 참조). 2015년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를 벗어나 2015년 1월 플러스 증가를 한 이후 상반기 내내 증가를 지속해 0.7% 증가했다. 경기둔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 수가 큰 폭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하는 비경제활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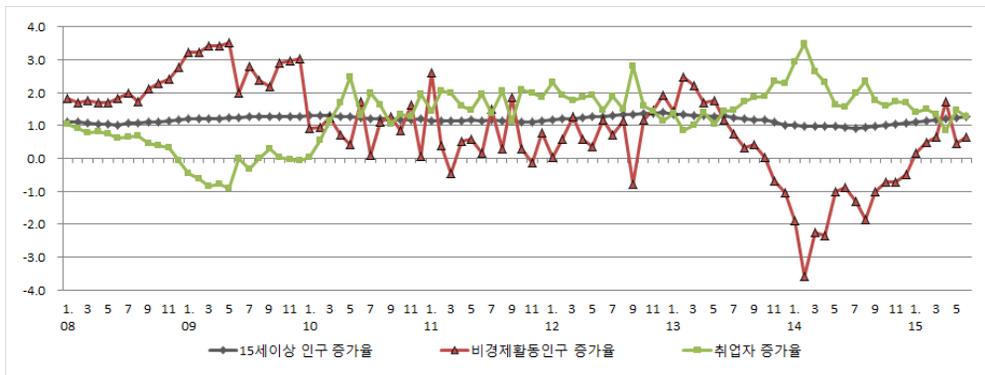
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렇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이끈 것은 주로 60세 이상 남성으로 비경황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쉬었음’이었다.

2015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 331천 명 가운데 남성은 143천 명, 여성은 188천 명 증가해 여성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율은 1.3%를 기록해 2014년 상반기(2.4%)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시장으로 진입은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는 10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4.0%까지 증가했다.

한편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흐름은 고용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그림 3 참조). 15세 이상 고용률로 보면, 2015년 상반기 59.9%로 전년 상반기에 비해 0.1%p 증가에 그쳤지만, 고령화의 영향을 통제한

[그림 2]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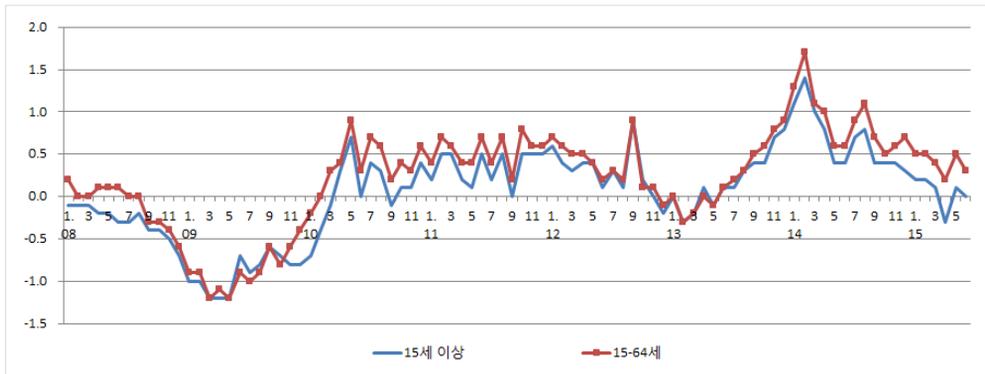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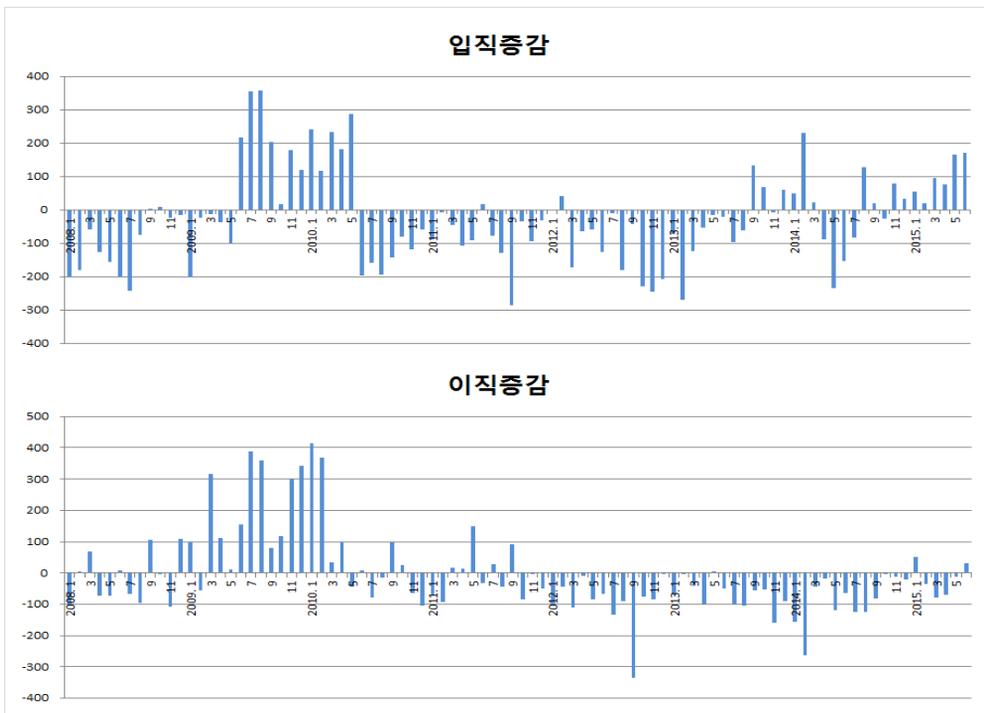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5~64세 인구 고용률은 0.4%p 증가해 65.4%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 영향으로 15세 이상 고용률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 모습을 보인다.

취업자 증가 흐름과는 달리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신규채용자(입직)의 경우 2014년 11월 이후 상승추세를 이어온 가운데 2015년 3월 이후 입직자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그림 4 참조). 특히 4월은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77천 명 증가했으며,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2015년 1월 54천 명 ↑ → 2월 20천 명 ↑ → 3월 96천 명 ↑ → 4월 77천 명 ↑ → 5월 166천 명 ↑ → 6월 171천 명 ↑).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증가한 신규채용자를 종사상지위로 보면 상용직 32천 명 증가, 일용직이 66천 명 증가로 나타나 신규채용의 상당부분이 일용직 증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자(이직)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일용직 위주의 입직은 증가했지만, 일용직 채용은 일시적 현상이 강해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흐름이 활발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입직은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 수를 그린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II. 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고령층의 고용증가 주도 및 20대 초반 취업자 증가

2015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초반(20~24세) 청년층과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158+171=329천 명)한 반면, 20대 후반~40대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그림 5]를 보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50세 이상 취업자 증감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며 장기간 고용증가를 주도했지만, 2015년 들어 2014년 초 증가 폭의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며 전체 고용성과 부진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부 연령을 보면, 20~24세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80천 명 증가했고, 25~29세는 19천 명 감소했는데, 이는 이 연령대의 인구가 20대 초반은 53천 명 늘고 20대 후반은 2천 명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0대와 40대는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그 중에서 30대 후반은 인구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천 명 감소했다.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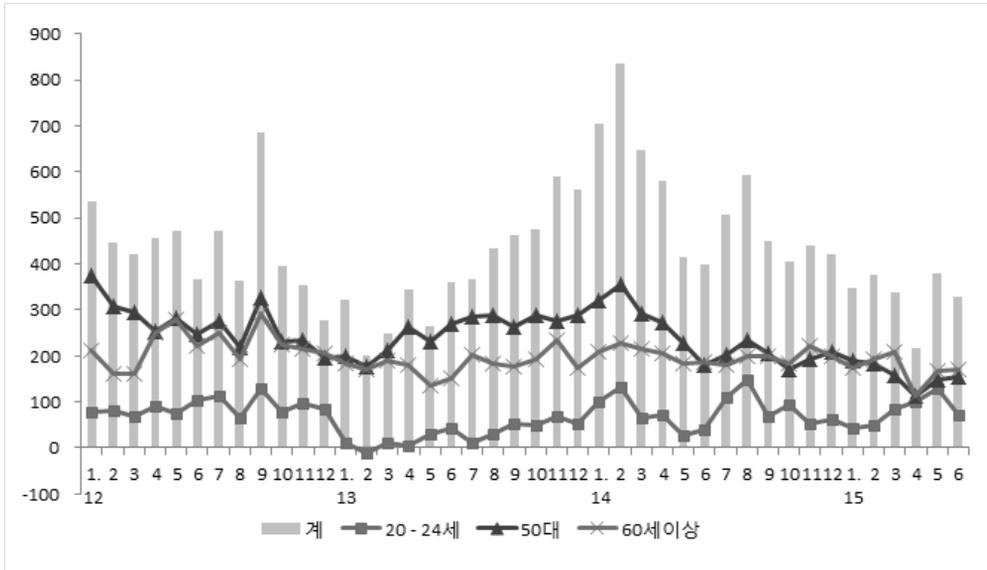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각 연도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증감			
	연 도			상반기				2015. 1~6	2013. 1~6	2014. 1~6	2015. 1~6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전 체	437	385	533	290	597	331	25,683	545	412	503	
15~19세	4	-7	20	-8	25	0	247	-24	-70	-74	
20대	-40	-43	56	-95	50	61	3,656	49	38	51	
20~24세	89	29	81	15	73	80	1,405	147	98	53	
25~29세	-129	-72	-25	-110	-24	-19	2,251	-98	-60	-2	
30대	-30	-21	-21	-4	-24	-28	5,668	-61	-115	-88	
30~34세	79	58	12	97	10	-25	2,872	66	-30	-108	
35~39세	-110	-78	-34	-100	-34	-3	2,797	-127	-85	20	
40대	11	22	38	3	67	-31	6,644	37	-23	-14	
50대	270	253	239	225	275	158	5,939	269	216	195	
60세 이상	222	181	200	168	205	171	3,529	274	366	4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전체 및 20~24세, 50세 이상 연령층 고용증감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률 변화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0.4%p 증가한 반면, 남성은 0.1%p 감소하였다(표 3 참조). 세부 연령별로 보면,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던 20대 초반의 경우 남녀 고용률은 모두 크게 증가했는데, 남성(2.3%p)이 여성(1.4%p)보다 더 크게 증가했고, 남녀 모두 전체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그림 6 왼쪽). 특히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감소하거나 소폭의 증가에 그쳐 20대 초반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편 2013년 하반기 이후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 청년층 고용 증가를 이끌었던 20대 후반(25~29세)은 2015년 들어 여성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는 동시에 남성 고용률도 크게 둔화하였다(그림 6 오른쪽).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비슷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특징이라기보다는 경기의 영향을 받은 영향이 더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0대는 취업자가 감소했음에도 30대 초반 여성(2.6%p)에서 주도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해 2014년 상반기 대비 0.5%p 증가하였다.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2014년 초를 기점으로 상승추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그림 7 왼쪽). 30대 초반 남성의 2015년 상반기 고용률은 89.6%로 전년 상반기 대비 0.1%p 증가에 그쳤으며 최근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30대 후반은 남녀 모두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 남성의 고용률과 큰 차이가 없어진 흐름과 마찬가지로, 30~34세의 여성 고용률도 만혼이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이 활발해진 노동공급효과로 풀이된다).

〈표 3〉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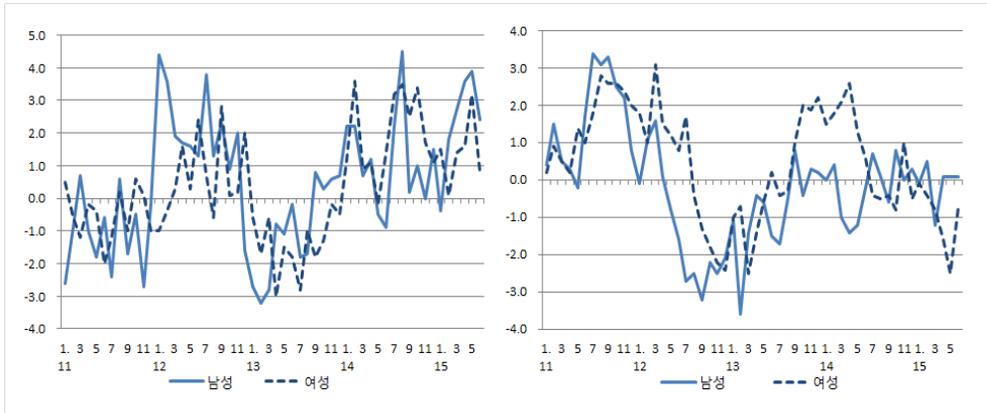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전체	전 체	59.4	59.5	60.2	59.0	59.8	59.9
	15~19세	7.0	6.9	7.7	6.7	7.7	7.9
	20대	58.1	56.8	57.4	56.6	57.0	57.5
	20~24세	44.5	43.2	44.8	42.8	43.9	45.7
	25~29세	69.3	68.8	69.1	68.6	69.1	68.6
	30대	72.8	73.2	73.9	72.7	73.5	74.0
	30~34세	72.2	72.9	74.1	72.6	73.4	74.8
	35~39세	73.2	73.5	73.7	72.8	73.6	73.1
	40대	78.3	78.4	79.0	77.9	78.9	78.7
	50대	72.2	73.1	74.2	72.4	73.9	74.0
	60세 이상	37.5	38.3	39.0	37.2	37.9	38.0
남성 (여성)	전 체	70.8(48.4)	70.8(48.8)	71.3(49.5)	70.3(48.1)	71.0(49.0)	70.9(49.4)
	15~19세	5.7(8.3)	5.9(7.9)	6.8(8.6)	5.7(7.9)	6.9(8.5)	6.9(8.8)
	20대	57.3(58.8)	55.7(57.8)	55.8(59.0)	55.6(57.5)	55.2(58.8)	56.1(58.9)
	20~24세	39.1(48.9)	38.1(47.5)	39.3(49.5)	37.5(47.3)	38.3(48.7)	40.6(50.1)
	25~29세	70.4(68.0)	69.6(68.1)	69.4(68.8)	69.6(67.5)	69.0(69.2)	69.0(68.1)
	30대	90.3(54.5)	90.2(55.5)	90.9(56.3)	89.9(54.9)	90.8(55.6)	90.8(56.5)
	30~34세	89.0(54.8)	88.5(56.7)	89.9(57.7)	88.2(56.5)	89.5(56.7)	89.6(59.3)
	35~39세	91.7(54.2)	92.1(54.4)	92.1(54.9)	91.8(53.3)	92.1(54.6)	92.0(53.7)
	40대	91.7(64.6)	92.0(64.6)	92.7(65.1)	91.5(64.0)	92.7(64.9)	92.1(65.1)
	50대	86.3(58.1)	86.7(59.5)	87.5(60.9)	86.1(58.7)	87.2(60.5)	86.7(61.3)
	60세 이상	49.9(27.9)	51.0(28.6)	51.4(29.3)	49.8(27.5)	50.6(28.1)	50.3(28.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30~34세 여성 취업자 가운데 무배우자(미혼)의 비중은 2005년 28.7%에서 2014년 41.7%까지 급증.

[그림 6] 성별·연령별 고용률 증감 추이 : 20~24세(좌측), 25~29세(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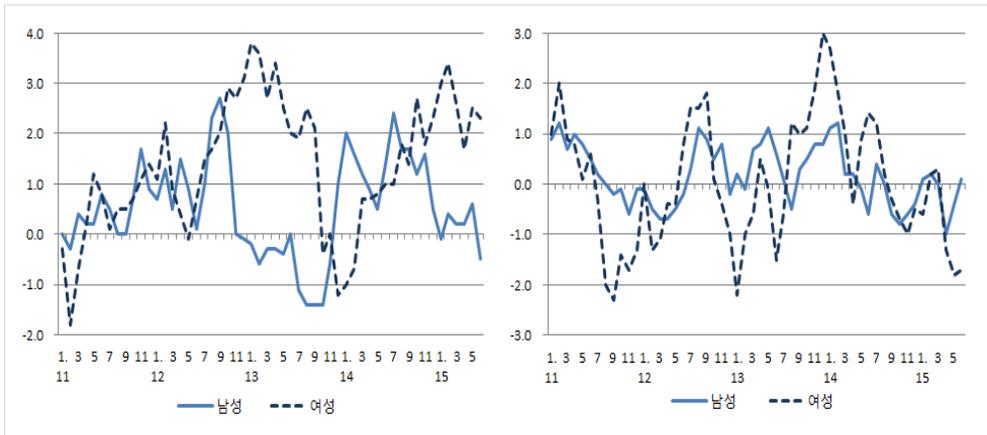
(단위 :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성별·연령별 고용률 증감 추이 : 30~34세 좌측, 35~39세 우측

(단위 :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임금근로자의 꾸준한 40만 명대의 증가의 영향이며, 2015년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344천 명 증가와 임시직 42천 명, 일용직 46천 명 증가에 힘입어 432천 명 증가하였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07천 명), 무급가족종사자(-58천 명) 감소영향을 크게 받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64천 명)의 증가에도 2014년 상반기 대비 101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 천 명)

	연도별 증감			상반기 증감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전 체	436	386	533	290	597	331
임금	315	483	548	400	598	432
상용직	436	615	443	596	542	344
임시직	-2	-96	139	-161	96	42
일용직	-120	-37	-35	-35	-40	46
비임금	121	-97	-15	-110	-1	-10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3	-39	40	-54	11	6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1	-28	-39	-12	-22	-107
무급가족종사자	-3	-30	-16	-44	9	-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온 2010년 5월(770천 명)과 2014년 2월(803천 명) 두 번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가파르게 줄어들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4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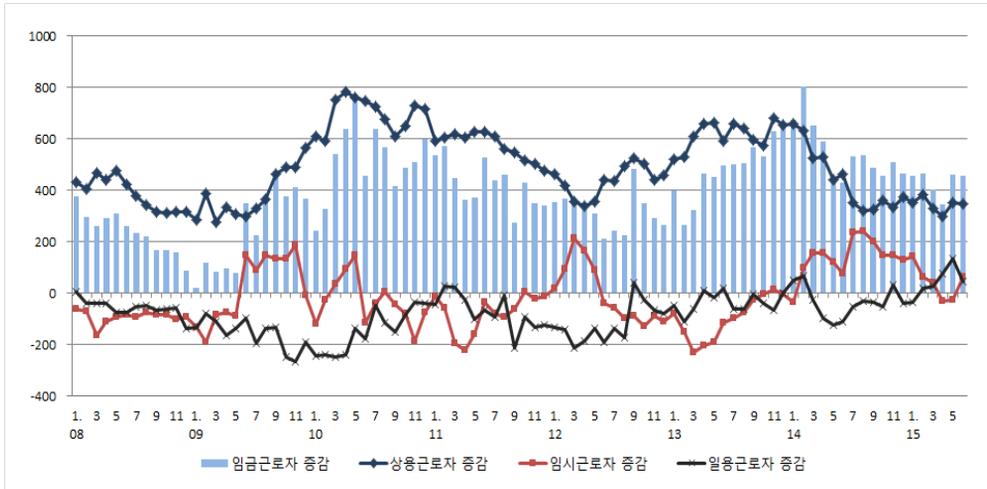
이러한 임금근로자의 변화는 상용직이 대부분 주도하고 있다. 상용직의 증가는 2013년 3월부터 60만 명대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된 기저효과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되었지만, 8월 이후 증가규모가 30만 대 초반의 저점을 기록한 후 현재까지 30만 명 중반의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임시근로자는 2014년 8월 242천 명 증가해 고점을 기록한 후 가파르게 증가추세가 둔화되다 2015년 6월 65천 명 증가로 반전해 추세를 뒤집었다. 반면 2014년 내내 감소국면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는 2월 20천 명 증가해 (+)전환된 후 3월 28천 명 ↑, 4월 78천 명 ↑, 5월 136천 명 ↑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6월 47천 명으로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상용직 증가는 주로 50세 이상 중고령층(50대 150천 명 ↑, 60세 이상 110천 명 ↑)에서 주도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15년 상반기 내내 지속되었다(그림 9 참조). 2014년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던 50대 상용직이 최근 둔화폭이 완화되었으며, 60세 이상의 상용직 증가폭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소추세를 뒤집고 증가로 반전한 임시직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연령층인 15~24세(63천 명 ↑)와 은퇴연령층인 60세 이상(33천 명 ↑)의 영향이며, 핵심연령층(25~49세)의 감소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증가한 일용직의 대부분은 50세 이상 고령층의 영향이며, 2014년 상반기 대비 50대는 24천 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26천 명 증가하였다.

[그림 8]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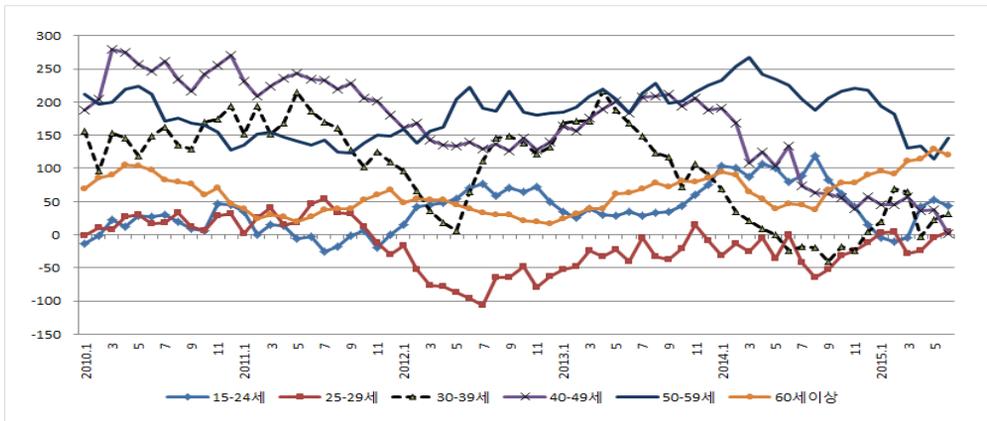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9] 연령별 상용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임금근로자의 변화를 장기적 흐름에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을 하며 하향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150만 명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그리고 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취업자 수 둔화에는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반영되었다. 특히 2014년 3월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속적

〈표 5〉 종사상 지위별·연령별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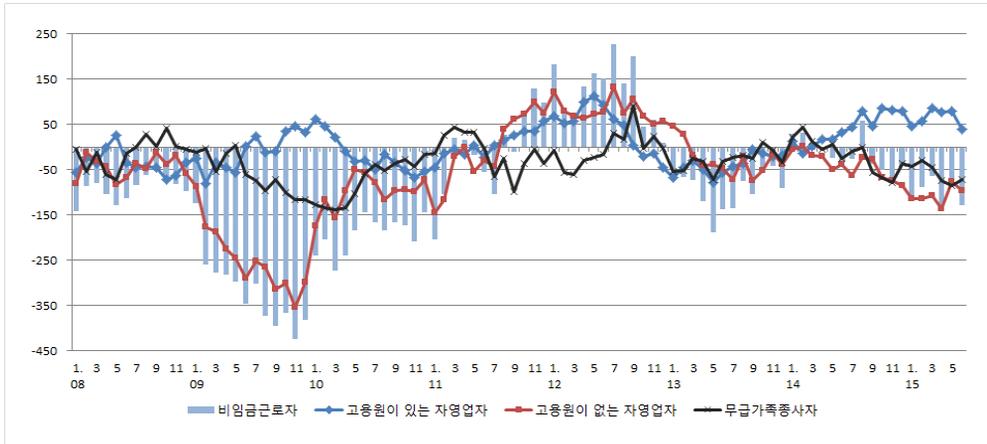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기대비 증감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15~24세	상용직	56	39	82	32	96	20
	임시직	39	-16	54	-29	29	63
	일용직	2	-1	-24	1	-19	-7
	고용원 있는 자영자	0	0	2	-2	2	3
	고용원 없는 자영자	1	-7	-5	-1	-6	-5
	무급가족종사자	-5	7	-7	5	-3	7
25~29세	상용직	-69	-26	-28	-37	-19	-8
	임시직	-47	-37	-16	-42	-36	-1
	일용직	-10	3	5	1	9	-8
	고용원 있는 자영자	1	-11	-2	-17	-6	6
	고용원 없는 자영자	-6	0	11	-12	19	-6
	무급가족종사자	2	-1	7	-3	10	-3
30~39세	상용직	90	145	-1	181	18	34
	임시직	-86	-113	4	-146	-6	-15
	일용직	-38	-25	-14	-24	-28	8
	고용원 있는 자영자	-10	-12	19	-13	14	-28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	-8	-21	7	-19	-8
	무급가족종사자	-7	-8	-7	-9	-4	-19
40~49세	상용직	141	190	99	178	139	37
	임시직	-39	-28	-1	-46	9	-45
	일용직	-64	-40	-5	-60	-2	3
	고용원 있는 자영자	5	-29	-2	-27	-18	22
	고용원 없는 자영자	-21	-53	-31	-28	-43	-25
	무급가족종사자	-11	-18	-21	-15	-18	-23
50~59세	상용직	182	206	226	199	242	150
	임시직	54	17	25	27	23	7
	일용직	-15	23	-12	38	-13	24
	고용원 있는 자영자	22	10	16	-3	24	37
	고용원 없는 자영자	36	-5	-23	-13	-20	-37
	무급가족종사자	-9	2	8	-22	19	-23
60세 이상	상용직	37	61	66	43	65	110
	임시직	77	81	74	75	77	33
	일용직	5	3	16	9	14	26
	고용원 있는 자영자	26	4	8	8	-4	25
	고용원 없는 자영자	51	44	31	34	48	-26
	무급가족종사자	26	-11	5	0	6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0]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그 변화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추세가 워낙 커 비임금근로자 감소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추세도 지속적이고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0 참조).

3. 제조업 고용증가세 지속 : 최근 고용증가폭 둔화 완충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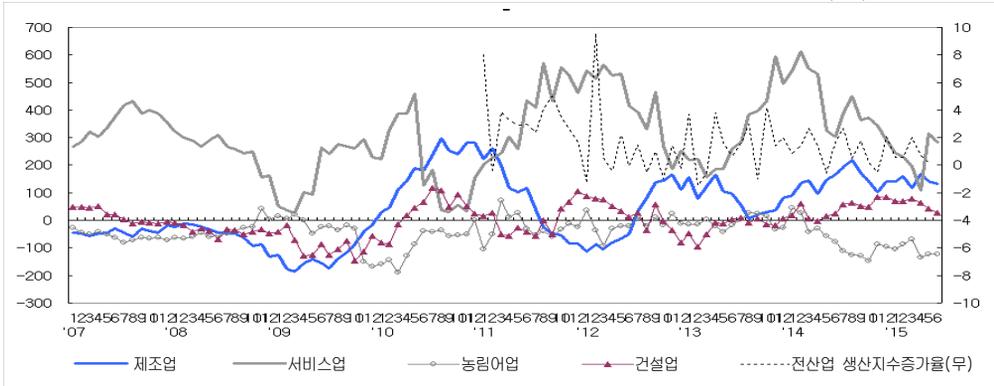
2015년 상반기에는 농림어업 부문에서의 1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2014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금융보험업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감소, 여기에 견조한 고용증가세를 유지해 왔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이 크게 둔화함으로써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생산 등 경제지표에서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은 반짝 증가했다가 2012년부터 저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들어서는 미세하게나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수출 또한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증가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조업 고용증가세를 이어가는 동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현 시점에서 제조업 고용확대가 최근 고용둔화폭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그림 11]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취업자 전체	436	386	533	290	597	331
민간부문	436	372	541	296	583	381
공공부문	-0	14	-8	-6	14	-50
농림어업	-14	-8	-68	-18	-21	-107
건설업	22	-19	42	-35	19	58
제조업	14	79	146	120	130	143
서비스업	416	318	423	205	478	229
도매 및 소매업	51	-29	138	-59	127	52
음식숙박업	53	64	138	35	131	86
금융 및 보험업	-4	22	-32	11	-8	-62
사업시설관리 등	30	57	12	85	-1	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	14	3	-6	14	-5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8	155	180	129	129	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등	-8	-17	4	-37	-4	43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	26	-17	47	-3	-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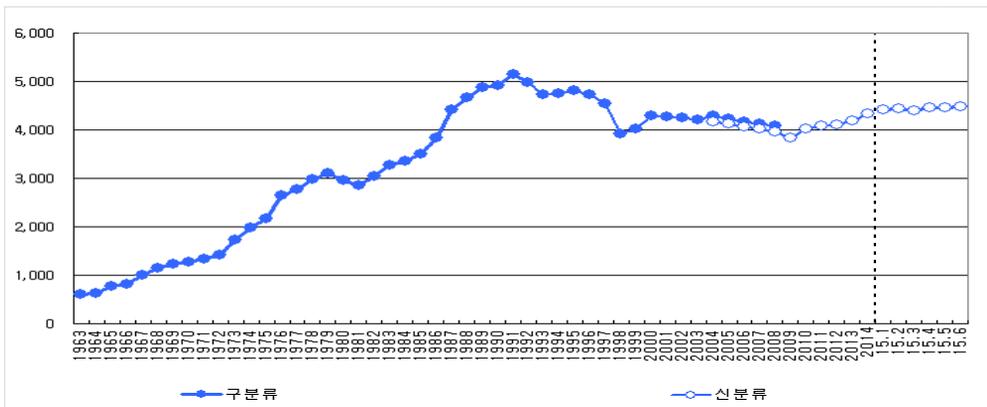
제조업 고용은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4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용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가 눈에 띈다.

특히 20대 청년층에서의 상용직 고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20~29세)의 실업률이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들 연령층의 제조업 상용직은 고졸과 대졸학력층, 사무직종과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중심으로 2014년 5월 이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대 청년층 취업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7%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은퇴시기에 돌입한 베이비 부머 세대(55~59세 연령층)에서의 상용직은 저학력 장기근속자, 사무직종을 중심으로 둔화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상용직은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제조업 취업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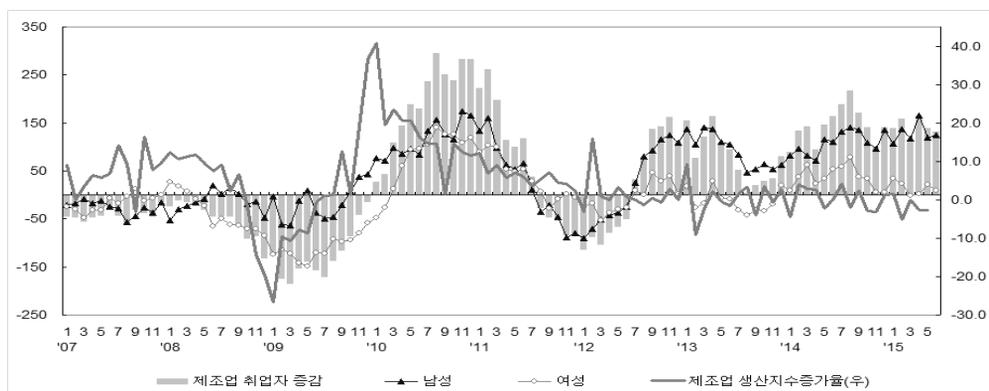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연도별, 월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3] 제조업 취업자 증감(성별) · 생산지수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_____,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kosis.

〈표 7〉 제조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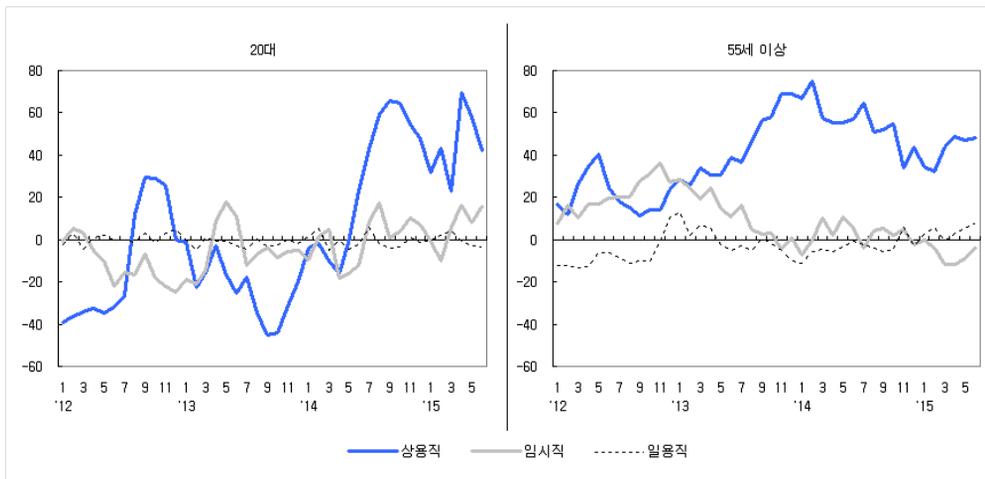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제조업 취업자 전체		14	79	146	120	130	143
지 위 별	상용직	84	152	209	162	199	174
	20대	-12	-23	27	-14	-2	45
	55~59세	14	31	60	19	66	25
	60세 이상	7	12	-5	12	-5	17
	임시직	-18	-14	-35	4	-31	-32
	일용직	-26	-19	-16	-9	-17	1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7	-16	-6	-20	-9	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	-12	2	-9	-0	-9
	무급가족종사자	-12	-12	-9	-9	-11	-5
연 령 별	20대	-26 (14.7)	-26 (13.8)	27 (13.9)	-18 (14.0)	-8 (13.4)	52 (14.2)
	20~24세	13	18	12	18	1	31
	25~29세	-38	-45	16	-36	-9	21
	55세 이상	41 (12.3)	46 (13.2)	72 (14.4)	46 (12.9)	74 (14.3)	49 (14.9)
20대 제조업 비중		16.7	16.1	16.6	16.5	16.1	17.2

주: ()안은 제조업 취업자 중 해당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4〉 제조업 20대·55세 이상 연령층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규모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4.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부진 : 도소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

위에서 살펴본 제조업의 고용호조에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전년동 평균대비 229천 명 증가하는 데 머물러 최근 고용증가폭 둔화를 견인하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생산은 2015년 들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고용은 4월 전년동월대비 108천 명 증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남성근로자의 고용부진이 컸던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남성 서비스업 종사자 중 임시직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1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2014년에 223천 명 증가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근 고용증가폭 둔화는 서비스업 남성 임시직에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직은 주로 30~40대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에서 고용감소폭이 컸으며,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취업자 규모를 가진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임시직의 고용이 2014년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20대 청년층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듯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도 20~2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고용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과는 다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20대 청년층에서의 제조업 상용직이 2014년부터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상용직은 감소하다가 6월에야 전년동월대비 21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층에서 서비스업 상용직과 임시직의 흐름이 제조업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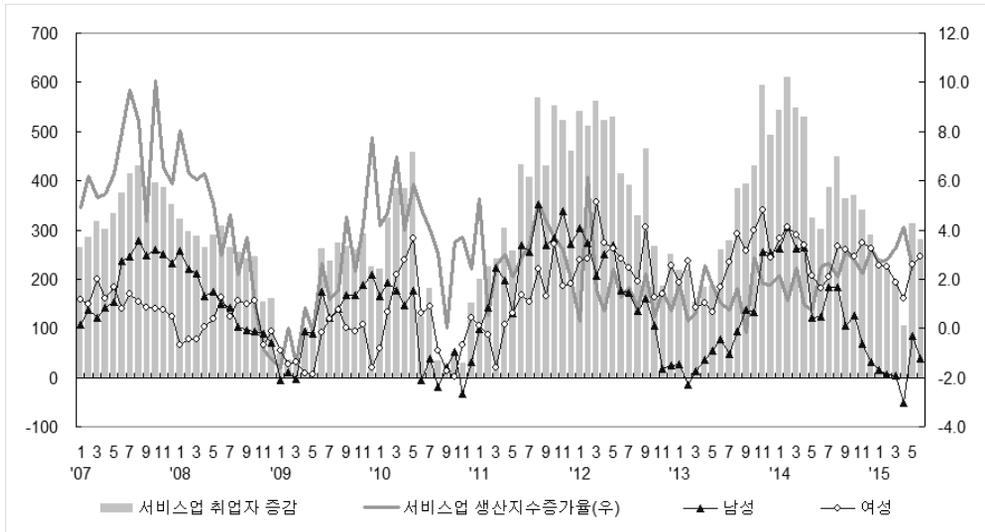
세부산업별 고용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내수업종이면서 2014년 고용증가세를 주도했던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고용둔화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에서는 남성근로자의 고용감소가 전년동기대비 16천 명 증가에 그쳐 2014년 103천 명 증가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5]를 통해 서비스업 부문에 종사하는 성별 고용흐름을 보면, 여성은 2011년 이후 일정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 고용등락폭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성별 고용격차가 거의 좁혀졌으며, 여기에는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의 남성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2014년 기저효과에다 최근 불안한 경기가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남성근로자의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0만 명 이상의 견조한 고용증가세를 이어오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고용부진 또한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을 둔화하는 데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림 17]은 최근 고용변동이 큰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고용증가세를 유지했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고용이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15]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성별) · 생산지수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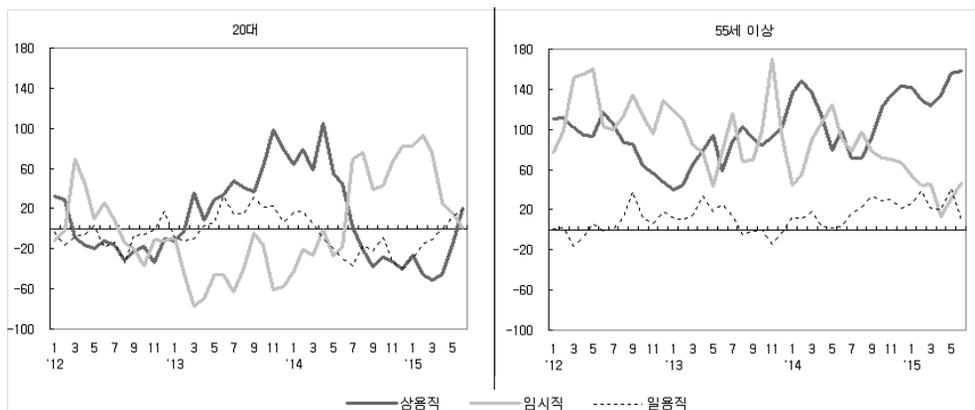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6] 서비스업 20대 · 55세 이상 연령층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8〉 서비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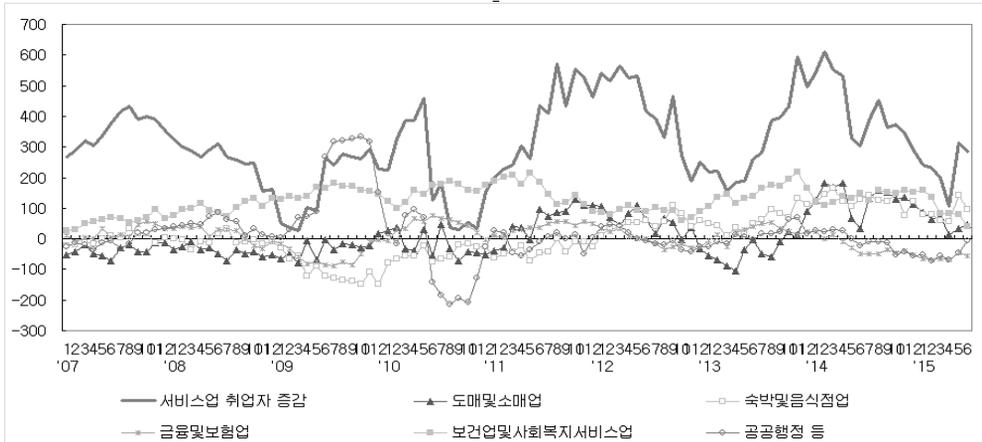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서비스업 전체		416	318	424	205	478	229
지 위 별	상용직	345	419	236	397	337	172
	임시직	36	-65	156	-130	115	49
	남성	175	93	170	32	223	16
	20대	-22	-8	29	-55	49	18
	30~40대	61	20	36	-9	65	-78
	도매 및 소매업	51	-29	132	-59	127	52
	음식숙박업	53	64	127	35	131	86
	금융 및 보험업	-4	22	-26	11	-8	-62
	공공행정 등	-0	14	-8	-6	14	-50
	일용직	-65	-9	-15	-5	-32	1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2	-12	41	-25	28	3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3	-4	-16	-1	4	-25
	무급가족종사자	-6	-11	20	-31	27	-18
성 별	남성	175	93	170	32	223	16
	여성	241	225	254	173	256	213
연 령 별	20대	-22	-8	29	-55	49	18
		(17.9)	(17.2)	(16.7)	(16.2)	(16.1)	(16.0)
	20~24세	75	8	74	1	69	58
	25~29세	-97	-16	-45	-56	-20	-40
	55세 이상	301	241	296	203	298	256
	(19.5)	(20.5)	(21.7)	(20.2)	(21.3)	(22.4)	

주 : ()안은 제조업 취업자 중 해당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7〉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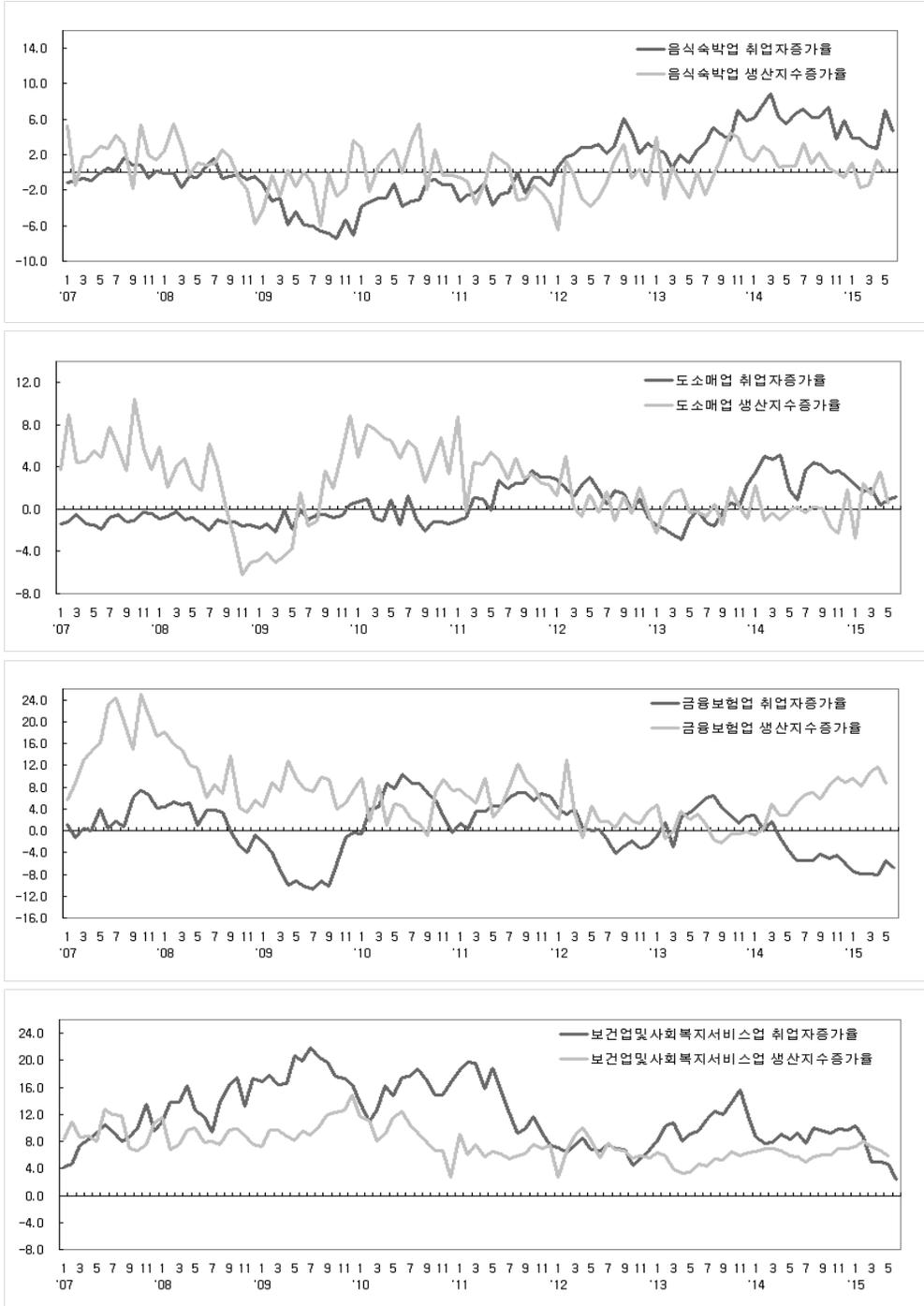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8] 서비스업 고용변동이 큰 세부산업별 생산지수증가율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특히 6월에는 고용부진 추세에다가 메르스의 영향까지 더해 전년동월대비 41천 명 증가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에서 고용감소가 컸으며, 주로 전문대졸 학력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에 이어 저금리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의 구조조정이 2015년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의 고용은 전년동평균 대비 62천 명 감소하여 2014년 동기간 동안 8천 명 감소한 것에 비해 고용감소폭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금융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반면 2015년에는 보험, 연금업 등 금융업 이외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0천 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43천 명 ↓), 운수업(7천 명 ↓) 부문에서도 2015년 상반기 동안 고용이 감소한 반면, 최근 서비스업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4천 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3천 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43천 명 ↑) 부문에서는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농림어업의 고용감소폭 확대, 건설업의 고용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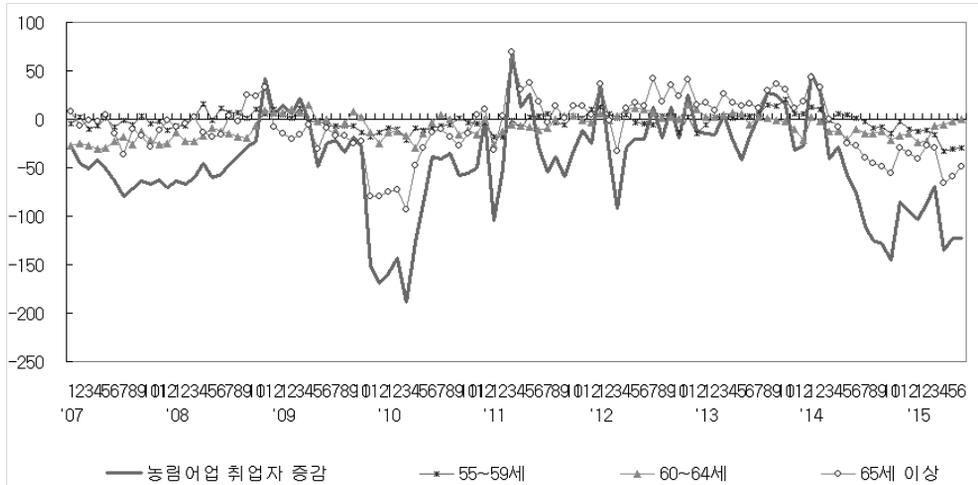
2015년 상반기 고용부진은 서비스업, 특히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의 임시직과 더불어 농림어업의 고용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7천 명 감소하여 2013년, 2014년 각각 18천 명, 21천 명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2014년 12월 기준 농어가 인구가 전년대비 101천 명 감소한 데다 2015년 상반기 동안 가뭄 등으로 농림어업의 생산이 2사분기 3.5% 감소한 것이 농림어업 고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로 변경되면서 65세 이상 취업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9]에서 보듯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취업자의 감소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설업의 생산지수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부문에서의 취업자는 2015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58천 명 증가하면서 2014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농림어업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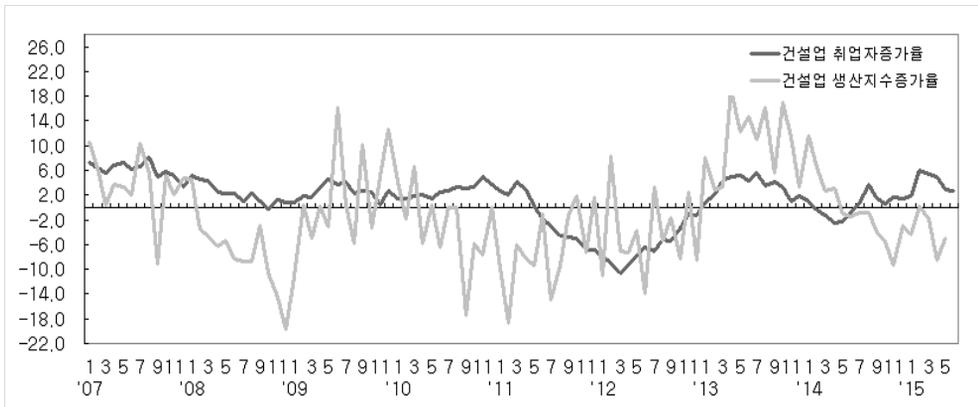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지급.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0] 건설업 생산지수증가율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6. 중소기업의 고용증가폭 둔화

사업체 규모별로 최근의 고용흐름을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한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동기대비 34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예년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증가폭 둔화는 주로 40대 연령층 상용직의 둔화와 55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임시직의 감소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체에서의 고용은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서비스업, 특히 최근 고용변동이 큰 산업(도매 및 소매업, 음식숙박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10만 명 이상의 고용성과를 보여 왔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고용 또한 소폭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직 일자리가 전년동기대비 절반 수준 증가에 머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라진 상용직 일자리의 대부분은 2014년에 이어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11천 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9천 명 ↓)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업체 규모별·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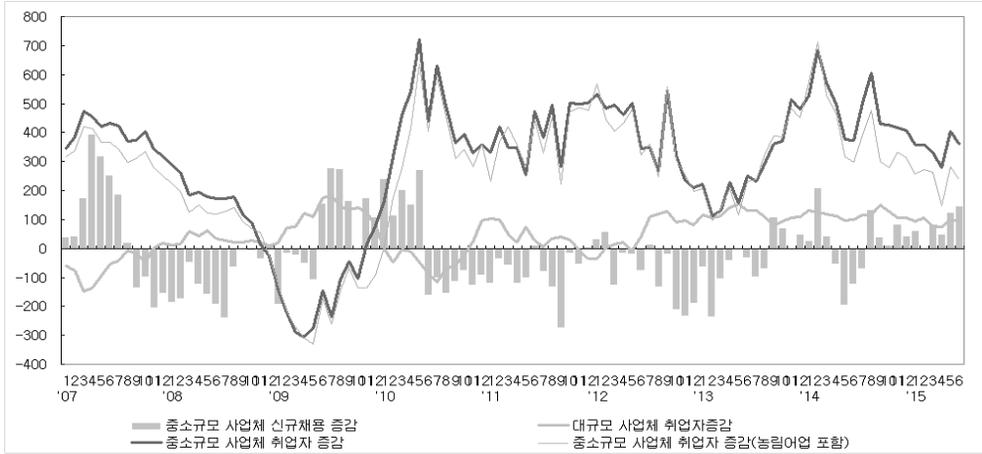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중 소 규 모	소 계	381	272	416	166	482	242
	소계(농림어업 제외)	395	279	485	183	505	347
	20대	-28	-34	22	-80	17	58
	20~24세	85	26	77	17	63	83
	25~29세	-113	-60	-55	-97	-46	-25
	상용직	358	500	325	467	417	284
	40대	144	181	72	186	119	-10
	임시직	23	-98	142	-156	105	13
	55세 이상	135	111	95	108	97	39
	일용직	-101	-28	-29	-26	-36	5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0	-44	44	-52	10	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1	-23	-10	-7	-7	-36
	제조업	-41	39	79	57	71	72
	도매 및 소매업	58	-29	116	-55	101	52
	숙박 및 음식점업	54	62	125	33	125	89
보건업 등	89	129	127	105	125	71	
대 규 모	소 계	55	114	117	125	114	88
	20대	-20	-13	37	-20	29	10
	20~24세	5	2	7	-2	8	-1
	25~29세	-25	-15	30	-18	21	11
	상용직	81	110	115	123	120	63
	금융 및 보험업	-13	1	2	-6	7	-11
	공공행정 등	-5	1	-3	-4	8	-29
임시직	-24	4	5	1	-5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1]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7.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규모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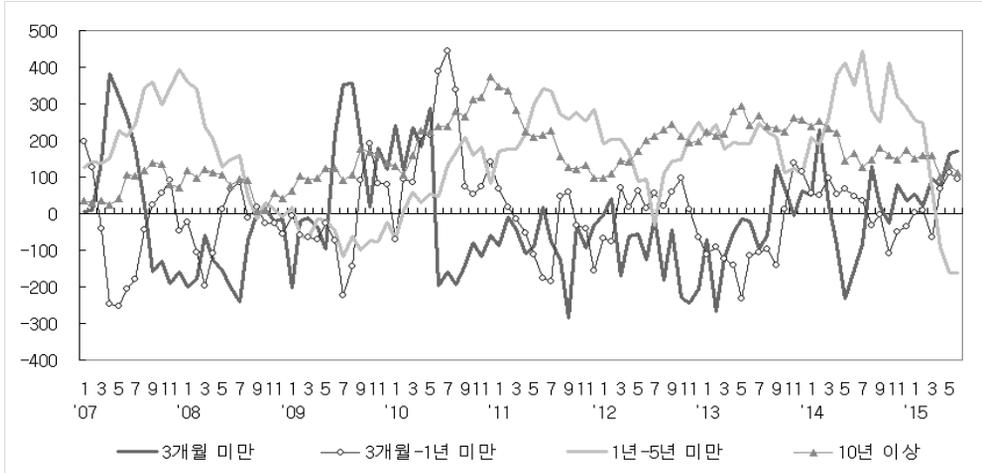
2015년 상반기에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전년동평균대비 432천 개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근속연수별로 살펴본 결과,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신규채용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5년 미만 근속자의 규모는 2015년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년 미만 근속자들은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인 40대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속연수가 3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2014년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2015년 이전에는 신규채용 규모가 저조하였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동안 신규채용규모는 전년동기대비 97천 명 증가하였고, 2개월 연속 1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은 일용직을 중심으로 활발한 가운데 상용직의 신규채용도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신규채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20대 청년층의 신규채용 규모가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67천 명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들여다보면 상용직이 최근 3개월 동안 전년동평균대비 47천 명 증가했으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 근속연수별 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0>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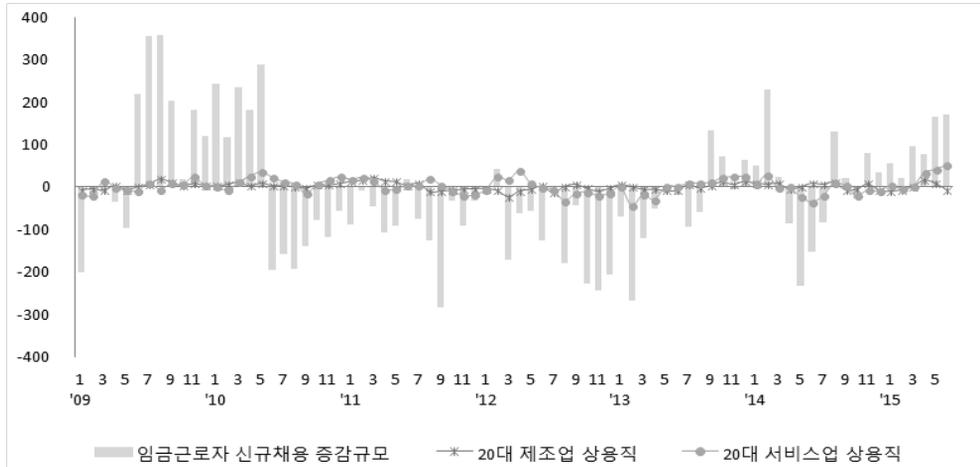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1~6	2014 1~6	2015 1~6
임금근로자		315	483	548	400	598	432
신규채용		-108	-37	-1	-92	-28	97
지위별	상용직	-5	-0	-6	-27	-2	32
	임시직	-56	-48	16	-85	11	-0
	일용직	-47	11	-11	20	-37	66
산업별	제조업	-20	-10	-36	-1	-33	10
	음식숙박업	-3	11	17	3	5	57
	건설업	-12	21	11	15	14	15
연령별	20대	-40	5	-6	-31	0	17
	50대	18	9	10	10	5	34
	60세 이상	18	3	40	3	38	40

주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를 신규채용으로 간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3] 신규채용 규모 증감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Ⅲ. 2015년 하반기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연간 전망치를 2014년 1월에는 3.7%로 제시하였다가 4월 수정전망에서는 3.4%로, 2015년 7월에 다시 2.8%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 메르스 사태 및 가뭄 등 내수부문 위축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1.4%p 낮은 2.3%²⁾ 성장을 보인 2015년 상반기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져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2.0% 후반대로 전망하였다.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경제둔화 상태에 빠졌던 유로존은 올해 초 유럽중앙은행의 1조 1,400억 유로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계획 발표와 유로화 약세의 지속 등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리스 위기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리스크 또한 확대되어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5%p 낮은 3.2%로 하향전망되었다. 선진국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국들의 통화약세와 대중수출의 부진은 국내 수출산업에 하방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경기회복기가 종료된 201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1% 저점 이후

2) 한국은행 7월 23일 속보치 2.2% 기준.

〈표 11〉 한국은행 2015년 경제전망

(단위: %, 만 명)

	2015. 1				2015. 4				2015. 7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4	3.5	3.5	3.8	3.3	3.5	3.4	3.7	3.2	3.3	3.2	3.7
경제성장률	3.0	3.7	3.4	3.7	2.7	3.4	3.1	3.4	2.4	3.1	2.8	3.3
민간소비	2.3	2.8	2.6	2.9	2.1	2.6	2.3	2.8	1.7	2.0	1.8	2.8
수출	-0.2	7.0	3.4	3.9	-0.6	6.3	2.9	3.8	-1.0	3.9	1.5	3.0
취업자 수	39	45	42	38	41	43	42	38	32	34	33	34
실업률	3.6	3.1	3.4	3.3	3.8	3.2	3.5	3.4	4.0	3.4	3.7	3.5

자료: 한국은행,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도자료.

〈표 12〉 고용탄력성 추이

	전 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및	보건 및
				숙박·음식점업	사회복지서비스업
2011	0.471	0.241	0.758	0.082	3.915
2012	0.784	0.143	0.884	0.552	0.945
2013	0.538	0.535	0.642	0.223	2.131
2014	0.644	0.872	0.781	1.840	1.193
2015	0.487				
2011. 1/4	0.374	0.511	0.412	-0.193	4.018
2/4	0.462	0.429	0.590	-0.012	5.090
3/4	0.456	-0.053	0.923	0.212	3.231
4/4	0.657	-0.534	1.202	0.438	3.152
2012. 1/4	0.798	-0.913	1.266	0.653	1.022
2/4	0.731	-0.571	1.003	0.849	0.987
3/4	0.984	1.052	0.872	0.561	0.913
4/4	0.635	1.726	0.497	0.275	0.885
2013. 1/4	0.511	1.092	0.532	-0.289	2.075
2/4	0.478	0.828	0.437	-0.076	1.947
3/4	0.526	0.166	0.640	0.277	2.216
4/4	0.624	0.278	0.891	0.777	2.171
2014. 1/4	0.773	0.580	0.952	1.369	1.033
2/4	0.547	0.642	0.819	1.907	1.239
3/4	0.617	1.416	0.714	1.967	1.295
4/4	0.615	1.266	0.618	2.465	1.213
2015. 1/4	0.568	4.641	0.411	1.399	1.077
2/4	0.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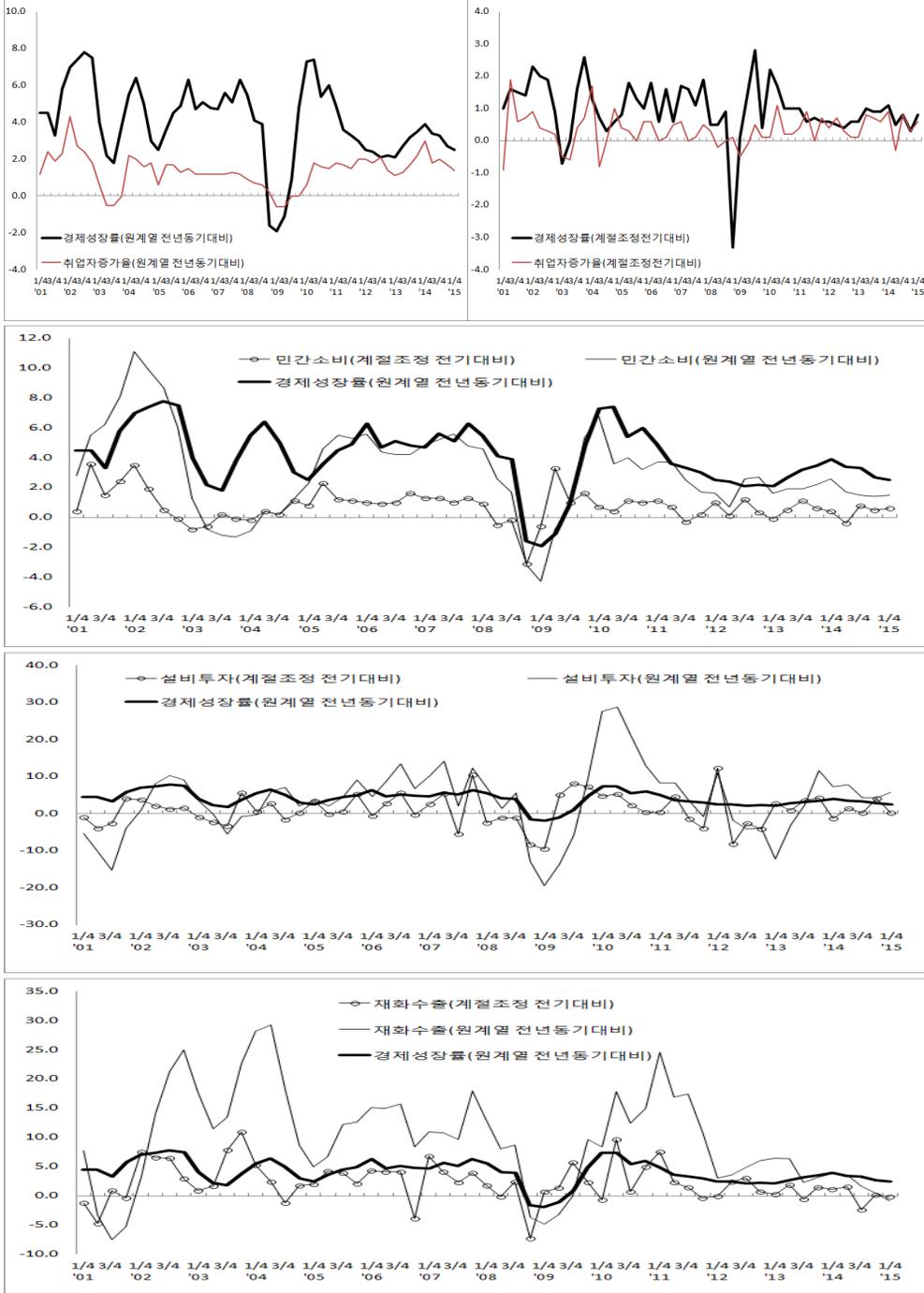
주: 2015년 연간 고용탄력성은 <표 13>의 하반기 고용전망을 전제한 수치임.

2015년 2분기 고용탄력성은 7월 23일 속보치(2.2%)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그림 24]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를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표 13〉 하반기 고용전망

(단위 : %, 천 명)

	2014			2015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3.7	3.0	3.3	2.3*	3.1	2.8
생산가능인구	42,397	42,629	42,513	42,901	43,190	43,045
경제활동인구	26,356	26,716	26,536	26,748	27,109	26,928
경제활동참가율	62.2	62.7	62.4	62.3	62.8	62.6
취업자	25,352	25,847	25,599	25,683	26,195	25,939
(증가율)	2.4	1.8	2.1	1.3	1.3	1.3
(증감수)	597	469	533	331	348	340
실업자	1,005	869	937	1,066	913	990
실업률	3.8	3.3	3.5	4.0	3.4	3.7
고용률	59.8	60.6	60.2	59.9	60.7	60.3
비경제활동인구	16,041	15,913	15,977	16,153	16,081	16,117

주 :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도자료.

회복세가 확대되어 2014년 3.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같은 일시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상환부담 등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었고, 국제 환율 추이 등 대외여건의 부정적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고용의 후행적 반응으로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증가율은 2013년 1분기 1.1%에서부터 2014년 1분기 3.0%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1분기에는 1.4%로 절반 이상 하락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성장에 대한 고용탄력성 역시 2014년 1분기 0.773에서 2015년 1분기 0.568까지 하락하였다(표 12 참조).

한편 2014년 상반기부터 농림어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감소추세가 올 6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여파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 6월 취업자 증가수(전년동월대비 32만 9천 명)가 우려와는 달리 소폭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세월호 사태로 고용이 위축된 데 따른 저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출부진과 내수위축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 내수가 회복되더라도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에 후행성을 띤 지표이지만 전년동기대비 그림의 2010~2012년 기간의 상황과 같이 고용이 경제성장률의 하락만큼 동반하락하지 않는 등

최근 들어 고용·성장 연계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5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전망치가 3.1%(2015년 연간 2.8%)이고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과 메르스 사태의 여파의 고용충격이 조기에 종식되어 경기회복세가 진전된다는 전제하에 하반기 취업자증가 수는 348천 명으로 연간 340천 명의 증가(전년대비 1.3%)가 예상된다(표 13 참조). 취업자 수 증감은 2014년 53만 명에 비해 크게 하회하지만 2014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는 1.1%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작년대비 0.2%p 상승한 3.7%로 전망되며 고용률은 전년보다 0.1%p 상승한 60.3%가 전망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시적 요인과 국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상반기 고용둔화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 실질구매력 확대에 의한 민간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내수업종에서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와 경쟁국 환율의 변동추이에 따라 국내 수출경기의 변화가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시킬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KLI**